마음이 옹졸하고 가난하다면 언제나 살림살이도 가난하다

☞ A17면에서 계속

"너 나기 이전 너의 아비는 지금 네가 다친 꼴을 보고 울고 있구나. 아비는 울고 있고 아들은 아파하는구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울다가 말고 여쭈니 "바로 네가 생기기 이전의 너는 지금 울고 있는 그 마음이니라. 네 몸이 아파하면 네 마음이 의욕이 없어지는 것도 네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의욕이 없어지느니라. 네가 의욕을 잃지 않는다면 그 아비도 의욕을 잃지 않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아비는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너 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간 곳이 없어졌으니, 그 말을 들은 그 약초 캐는 나무꾼은 그러자마자 일어나도 다리가 안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은 인제는 나무를 하러 다니든 약초를 캐든, 어떠한 짐승이 있든 불쌍한 걸 보든 항상 창문을 통해서, 이 두 눈을 말하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똑똑히 보시고 이것 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창문에 지나질 않아요. 눈이 아닙니다. 창문에 지나지 않고 그 창문 속에는 진짜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의 눈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의 눈은 눈이 아니고 창틀이고, 그 창틀 속에는 바로 아비의 눈이 시퍼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부랴사랴 약초를 캐러 또 가다 보니까 덫에, 이렇게 깊이 흙을 파고 선 덫을 놓고 풀을 덮어 놓지 않습니까? 그 풀을 딛고 가다가 산돼지가 그만 거기 덫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이 나무꾼이 가다 하는 소리가 그걸 보고 "아버지!" 대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가 그런 겁니다. "저 돼지가 덫에 걸려서 저렇게, 저 생명도 생명이거늘 어찌 그냥 보고 가겠습니까. 보지 못했다면 모르지마는." 하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려 주려무나."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자기가 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저 떨어진 나뭇가지 기다란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거기에서 그걸 밟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산돼지는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산돼지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너를 살려 줬거늘 앞으로 네 모습을 벗고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해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돼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는 그 후에 산에서 으뜸가는 맹수인 사자가 됐습니다. 사자가 됐는데도 글쎄, 돼지는 그때의 그 나무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습을 바꿔서 맹수가 됐는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그 나무꾼에게 바쳤다는 얘깁니다. 그건 뭐냐? 그 나무꾼을 못 잊은 그 마음과 이 맹수의 마음은 항시 둘이 아니어서 그만 이 모습도 벗고, 이 모습을 벗으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대인이 됐다는 얘깁니다. 대인이 돼서 어진 정승으로서 중생들을 많이 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딴 데 있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딜 다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다면 살 의욕이 없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참 내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만 고치는 게 부처님 법인가?" 이러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보석이나 뭐나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무 의욕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묘합니까? 그러니 자기 몸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야, 몸뚱이가 좀 아프다고 하면 그 마음은 얼마나 의욕이 없어지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모두. 얼마나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나.

사회 상식과 교양, 교육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한 인간의 대쪽 같은 그 한마음!
그거는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프면 서로 같이 아파 주고 울면 같이 울어 주고 의욕이 없어 하면 같이 의욕이 없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자기를 자기가 업신여기고 못 믿고 따르지 않고 이러면서도 저 먼 데 부처님이 계시다 하면 만날 그냥 '부처님, 날 좀 도와주시오. 이 몸 아픈 것 좀 낫게 해 주시오.' 하고 빌곤 합니다. '우리 남편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되게 해 주시오. 자식 잘되게 해 주시오. 나 몸 좀 안 아프게 해 주시오.' 하고선 빌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멉니까, 그게?

나에게 참 사랑하는 바로 내 자부처가, 자신(自神)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체 신이 바로 한마음에 계신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못 믿고 그렇게 빙빙빙빙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 몸과 내 가정 또 내 국가, 사회 이런 거를, 내 자식을 어떻게 길러 나가면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까? 지금 현재뿐만 아닙니다.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말입니다.

몰락 믿고 맡기려면

질문 주인공에 관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잘 안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어떻게 해야 몰락 믿고 맡길 수 있을는지요.

답변 요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남의 소리나 듣고….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석가세존의 몸뚱이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진짜 믿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뚫어보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뚫어 봐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나를, 나라는 존재를 버려라.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 놔라. 아집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직껏 살면서도 고정되게 보신 게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게 있습니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놔라. 한군데서 들고 나는 거다." 이겁니다. 역대를 한군데서 들고 나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바깥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 한군데로 들고 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 맺고 싶습니다

질문 회사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은 거의가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서로 잘 통하는 친구도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점이 다르니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종교적 부분에서 부딪치게 되어 관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요런 걸 한 번 대비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나보다 모자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라고 한다고 또 난 줄 알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나' 하면 벌써 여러 나라는 게 어딨는가? 누구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게 관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며 내 습을 어떻게 녹일 수 있으며, 내가 생동력 있게 모든 생물들과, 즉 사생(四生)과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대천세계를 막론해 놓고, 내 몸뚱이 집과 대천세계의 집과 도량이 둘이 아닌 걸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도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일차적으론 믿어야 한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둘째는 모든 일체를 거기서 해 나가니까 거기에 믿고 맡겨 놔라. 셋째, 거기서밖엔 일체를 할 수 없으니까 다가오는 대로, 아프면은 의사가 돼 주실 거고, 즉 약사가 된다 이거죠.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한다면 부처님의 마음, 한마음 안에서 그 모든 내 몸뚱이에 있는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니,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진다 이겁니다, 생사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생사에 뛰어들듯이.

분과 더불어 같이 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가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란다고 그냥 전부 예수를 믿듯이 말입니다. 그건 나를 따르란 거지, 나를 믿으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바로 알아들어야지, 잘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산이죠, 오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부처님도 바로 나를 믿고, 나는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따르랬지 믿으란 게 아니거든요. "너를 발견하라. 너를, 각을 이루라. 너를 깨달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물리가 터진다면 대중 생활을 할 때도 능숙합니다, 그것만 알면. 왜냐? 내가 만약에 저 못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아주 빈약하고 그릇이 작고 폭이 좁고 졸렬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 저거는 과거의 바로 나였구나.' 하니까 이건 과거의 자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끌어서 길러 줄 생각만 했지 '너는 작다', '너는 졸렬하다' 이러고 내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저 포근하고 따뜻하게 이끌어 가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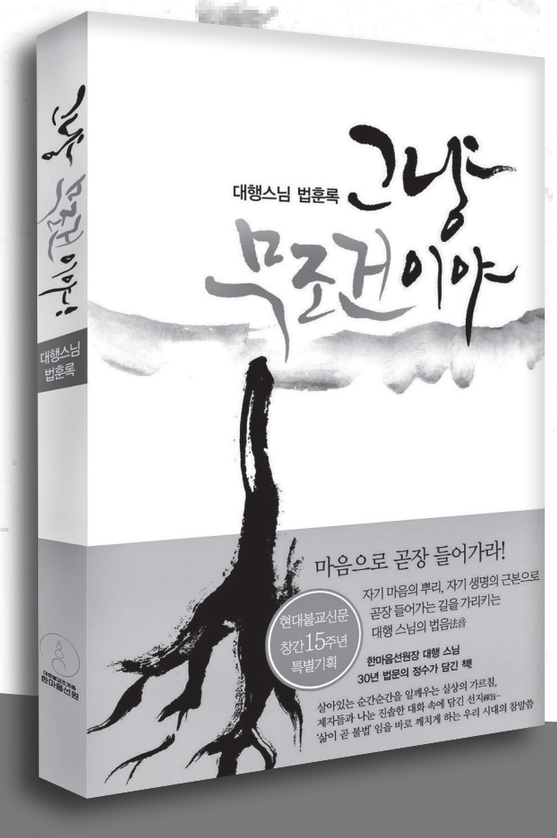
그랬고 윗분을, 아주 능숙하게 익은 분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존경하면서 바로 자기의 자(自)노승, 즉 말하자면 자기의 스승으로, 미래의 자기로 알기 때문에 또 숭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 가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지금 내가 얘기해 드린 거, 대중 생활이든지 대중 생활 아니든지, 내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떠한 정치인들이든지 다 요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둘이 아닌 이 폭이 넓은 그릇이 돼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도…, 내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한테.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인연이 돼서 만난 사람, 이걸 그르면 그르다고 생눈을 뜨고 보지 마라. 가화일화니 바로 저 성주와 같은 거다. 네가 만약에 서까래라면 성주와 같은 거야, 대들보. 대들보를 올리지 않았다면 서까래를 올릴 수가 없으니 그것을 대들보로 믿고 나쁜 여건이 있으면 안으로 굴리고 좋은 여건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좋게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봐라. 그런다면 마음의 자가발전소의 그 불은 가설이 본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항상 밝은 방을 가지면서 어디나 우리 있는 데는 다 밝다. 밝기 때문에, 컴컴하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웃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옹졸하고 가난하다면 언제나 살림살이도 가난해요. 배도 고프고. 이러니 본래 배부르게 가진 고등 동물이 제 밥을 찾아 먹지 못한 채 배가 고파서 만날 허덕이고 남의 심부름을 항상 해야만 하고, 남이 하던 거 따라가야 하고 자기가 생산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좀 더 욕심 아닌 욕심도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다른 거는 다, 사랑하고 인정 있고 도의, 의리와 이 사회 상식과 교양과 교육과 이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한 인간의 대쪽 같은 그 한마음, 이거는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풍족하게 가면서 이것을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참, 봄에 꽃 피는 일이라. 새가 우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도, 길이 이렇게 아스팔트로 돼 있는 것도 산 너머 계곡으로 넘어가는 길도 평전이 될 것이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아스팔트는 다니기 좋으니 몸으로 다니고 계곡을 넘어갈 때는, 산이 높아서 못 갈 때는 내 한생각이 바로 계곡을 넘어갈 수 있고, 강이 있어서 못 건너가는 데는 내 한생각이 그렇게 강을 건너서 훌쩍 가게 되면 그 강 건너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죠. 산을 넘어서 가면 그 산 너머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의 가난도 그 사람이 바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된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